

언어 기호와 세계의 인식

이 남 석

1. 들머리에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하나의 기호 체계로 이해할 때, 그것은 가장 정교하고도 복합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기호가 정교하면서 복합적이란 말은 기호가 대신하는 그 무엇을 기호를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기호가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때(Morris, 1938: 3f), 기호는 사물이나 사실의 정황과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호와 사물 사이의 관계를 헤르버만은 지칭 *denotation*으로 이해하였다(Herbermann, 1988: 27f). 이것은 달리 지시 *Referenz*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를테면 라이온스는 지시를 표현과 일정한 이야기 상황 속에서 그 표현이 대표하는 사물 사이의 관계로 이해했고(Lyons, 1980: 187), 브라운뮐러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Braunmüller, 1977: 2). 기호와 사물과의 관계는 기호화의 과정에서 지시와 상징으로 다시 이해될 수 있다.

지시와 상징의 영역을 분명하게 가르코자 한 시도는 빌러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지시어 *Zeigwörter*와는 달리, 이름씨 *Nennwörter*를 개념의 기호(Bühler, 1934[1982: 103]), 또는 언어 밖의

사물의 상징(같은 책, 150)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명사는 세계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기호화 과정의 하나로서 세계에 관계하는 언어의 범주화로 이해된다. 세계의 사물에 대한 언어의 범주화는 상징과 지시로 구현되는데, 상징, 또는 개념은 사물에 대하여 무엇인가 서술함으로써 그의 일반적인 속성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고, 지시는 그 사물의 시간 및 공간의 위치와 개별성을 현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홀렌슈타인은 가름씨 *Klassifiziertheit* 와 개별성 *Individuiertbeit* 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Holenstein, 1982: 16). 이러한 개별성과 가름씨가 사물에 내재하는 종합적인 자질이라 할 때, 그것은 또한 어떠한 언어적인 범주화를 통하여 이해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언어의 범주화에 대한 이해가 사실 세계의 정황 관계를 인식하는 데 중요하리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2.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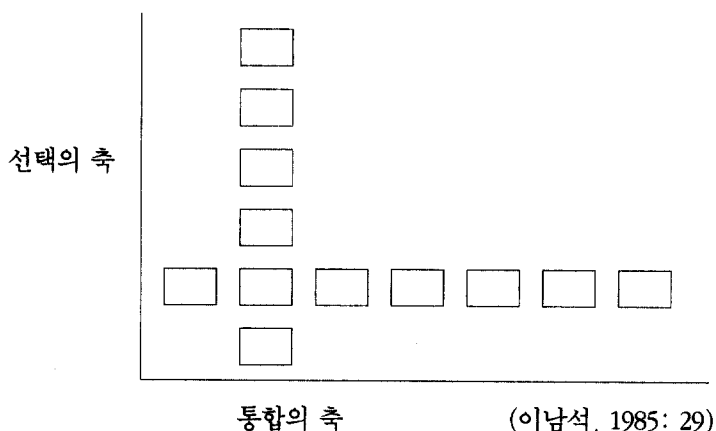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호의 짜임새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기로 한다.

1) 2 fast 4 u

이 간결한 서로 다른 차원의 기호들의 조합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이질적인 기호의 조합은 하나의 언술인가? 낱말의 기호가 각각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명제를 표현하는 언술에서도 그러한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노력은 결국 언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에 이르는 단서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말하기의 표현 구조

말하기란 무엇인가? 심리학의 성과에 따라서는 달리 말할 수도 있겠으나 언어학 일반의 업적에 근거하여 말하기를 정의하라면, 다음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겠다.



위의 기하학적 모델에 따르면 말하기란 선택의 패러다임에서 적합한 낱말을 통합의 축에 투영하는 것이다. 이때 선택의 축이란 유한한 음소들의 결합에 의해 무한히 생성 가능한 낱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축에서 다른 낱말과의 관계를 통하여 낱말의 가치와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낱말들의 계열 차원 *Paradigma*을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계열 차원의 요소들은 통합 차원의 관계에서 등가의 대체 *substitution*, 치환 *permutation*, 첨가 *addition*, 삭제 *omission* 등으로 새로운 의미 관계를 산출할 수 있다.¹⁾ 한편, 통합의 축에서는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낱말의 독립적인 형태로는 통사의 가치(품사)를 자리매김할 수 없는 중국

어를 고려에 넣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 선택의 차원과 통합의 차원 관계가 촘스키 학파에서는 명사구(NP)와 동사구(VP)에 의한 한 문장(S)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재구성한 이러한 말하기의 모델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하는 이는 선택의 패러다임에 있는 수많은 가능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하나를 통합의 축의 가장 적합한 위치에 투영한다. 이러한 말하기 과정은 거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에 가까운 메커니즘으로서 언어의 창조성의 원리이다. 이러한 창조성의 기저에 무엇이 작동하는지는 아직 신비로운 영역의 그 무엇으로밖에 달리 말할 수 없으며, 심리학이나 인지학의 발전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따름이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말하기 과정의 두 차원을 이용하여 수많은 기호의 조합이 어떤 기능을 하며 말하는 이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말하기 모델에 비추어볼 때, 문제의 제기에서 본, '2 fast 4 u'는 하나의 온전한 문장일까? 우선 말하기의 과정의 원리에 의하면 선택의 축에서 숫자가 둘, 영어의 한 낱말과 하나의 모음이 통합의 축에서 서로 시각적으로 낯선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낯선 조합 방식의 표현은 시각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문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낱말의 기호가 나름의 내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서로의 이웃한 관계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1) 이를테면 “靑春扶社稷 白首臥江湖”에서 扶를 亡으로, 臥를 汚로 대체 연산함으로써 의미의 전이가 통합의 축에서 일어난다(정계설, 1995: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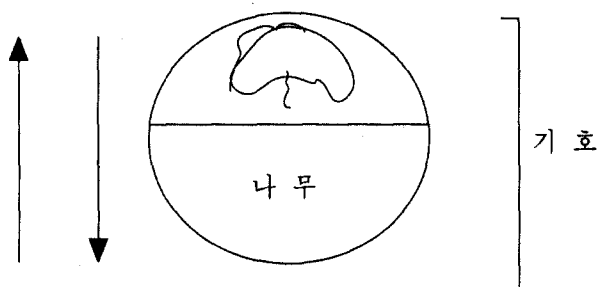
4. 기호와 의미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하나의 기호 체계로 이해할 때, 언어 연구는 그 기호의 가름과 쓰임의 바탕을 이루는 규칙을 다루게 된다. 퍼스는 기호 *sign*, 그 대상 *its object* 및 그 의미 *interpretant* (해석소라는 번역도 있음)의 상호 관계를 기호화과정의 세 주체로 보고, 기호를 모두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기호란 아이콘 *icon*이나 지시 *index*, 또는 상징 *symbol* 중의 하나로 나눌 수 있다. 지시 기호란 그가 가리키는 사물이나 사실 정황과 직접적인 물리적 관계를 맺는다. 즉 어떤 물리적 대상의 자리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아이콘이란 그가 표시하는 대상과 어떤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서, 일종의 묘사 *Abbildung*이다. 마지막으로 상징 *symbol*이란 그가 표시하는 것과 어떤 유사성을 띠거나 물리적인 관계를 갖지도 않는다. 상징 기호가 기호로서 기능하는 것은 그가 표시하는 대상에 대한 심상이 기호 사용자들 사이에 일치하기 때문이다(Peirce, 1966: 334f). 이 중 아이콘은 일종의 기하학적 개념으로서 주로 시각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Peirce, 1950: 104f). 따라서 이 아이콘 개념은 중국어를 고려에 넣는다고 해도 자연 언어에서는 순전히 낱말 자체에 호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²⁾ 이렇게 되면 기호의 정의에서 문제는 상징과 지시로 좁혀진다.

한편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는 하나의 기호는 두 가지 요소로 가름된다. 즉 소리 *signifiant*와 의미 *signifié*로서 기호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완성된다. 이처럼 소리와 의미가 서로 뗄 수 없는 사이를 지

2) 그러나 언어학에서도 통사 차원에서 아이콘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버그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관심 있는 분은 Greenberg, Joseph, H., *Some Iconic Relationships among Place, Time and Discourse Deixis, Iconicity in Syntax*, 1985, pp. 271~87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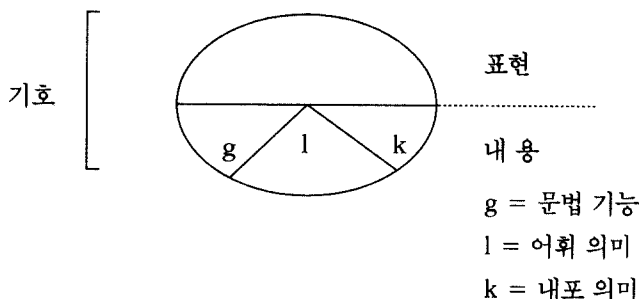
닌 기호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 그의 기호 개념은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다시 재현될 수 있다.



Saussure, 1916/31: 78

위의 그림으로 소쉬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란 낱말의 형식이 소리와 의미의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기호인 상태에서 세계의 사물, 이 경우에는 나무라는 대상과 관계한다는 점일 것이다. 소쉬르의 기호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기호는 소리와 함께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개념을 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의 제기로 삼은 1) 2 fast 4 u를 소쉬르의 기호 개념에 비추어보면, 각 계열의 낱말들은 그에 적합한 개념을 과연 갖는 것인가?

이제 논의를 깊이있게 하기 위해서 문제의 기호의 조합을 하나의 음운 체계에서 실현시켜보자. 문제의 보기는 하나의 일관된 음운 체계인 영어에서 too fast for you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소쉬르의 기호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보완시키면 어떨까?



위의 모형에는 기호의 의미 측면에 낱말의 의미말고도 문법의 기능과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이처럼 소쉬르의 개념을 수정한 기호의 카테고리는 이제 문제의 보기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보편 양화사가 아니다. 즉 보기의 you는 기호의 확장 영역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그 어떤 다른 것을 담보하고 있다. 의미가 기호의 일부라는 소쉬르의 이론은 you와 같은 기호를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바 있지만, 소쉬르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논리학자이면서 프래그머티즘을 창시한 철학자이기도한 퍼스(1839~1914)는 원칙적으로 기호의 세 가지 층위의 관계에서 출발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해석자와의 관계이다. 그는 1867년 하나의 중요한 기호 범주를 소개하는데, 이른바 지시 범주 *Indices*가 그것으로서, 이것 없이는 인간이 언어를 인식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퍼스는 언어 체계에서 우선 지시대명사를 고려에 넣은 것이다(Apel, 1970: 83ff). 퍼스의 이론을 따르는 모리스는 크게 기호를 지시 기호 *indexical signs*와 의미 기호 *characterizing signs*로 나누었는데, 그의 이러한 가름은 뵐러(Bühler, 1934[1982])의 지시어 *Zeigwörter*와 이름씨 *Nennwörter* 구분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지시 표현들이 기호 체계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언어 체계의 심층 구조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그의 효과나

고유한 성질이 언어 쓰임새의 표층 구조에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논리학에서도 이를테면 바-힐렐(Bar-Hillel, 1953) 등에 의해서 강조되어왔다.

5. 이름씨와 지시어

뮐러 Bühler는 지시 *Deixis*와 이름 *Nennen* 사이를 분명하게 가름하고 있다. 그는 지시어와 달리 이름씨를 개념의 기호(Bühler, 1934 [1982: 103]), 또는 언어 밖에 존재하는 사물의 상징(같은 책, 150)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름씨는 언어 밖의 사물을 일정한 의미 자질로 묶어놓는 기능을 한다. 그러한 의미 자질로 인해서 이름씨는 다른 자질과 구별된다(같은 책, 103, 119). 이러한 의미 자질이 모여 인접한 환경을 마련한 곳이 바로 상징 영역 *symbolfeld*이다. 상징 영역은 언어의 통사적인 요소와 어휘적인 요소 사이의 관계를 포함(같은 책, 151)하는데, 언어의 맥락이라고도 불린다.

상황과 맥락은 거칠게 말해서 두 개의 시원(始源)이다. 이 두 시원으로부터 각각 언어적 표현의 정확한 해석이 주어진다. (같은 책, 149)

위의 인용에서 상황이란 지시 영역 *Zeigfeld*을 이루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상황 *demonstratio ad oculos et ad aures*을 일컫는다. 이것은 달리 말해 언어 밖의 맥락 *außersprachlicher Kontext*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상징 영역은 언어에 내재하는 맥락 *Innersprachlicher Kontext*이다.

뮐러 이외에도 상징과 지시를 구별한 학자는 많다. 라우 Rauh는 모리스(Morris, 1938)에 준거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지시

표현 *deiktische Ausdrücke*은 어떤 특징으로 그 대상을 성격짓지 않고 보여주듯 가리키는 것이다(Rauh, 1978: 31). 바인라이히 Weinreich는 지시 표현을 이름짓지는 않고 *without designation*, 가리키기 위해 쓰이는 기호라고 일컫는다(Weinreich, 1963: 116). 이름씨 *Nennwörter* 또는 상징어 *Symbolwörter*는 이와는 달리 그 지시 대상을 특징적으로 성격짓는 낱말로서 그 낱말의 내용을 통하여 그 지시 대상에 대한 심리적인 이미지를 자아낸다. 그러나 지시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미지의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리스 Morris는 퍼스의 기호의 가름을 조금 변화시켜 받아들이고 있다. 대체로 그의 지시 기호 *indexical signs*와 개성을 부여하는 기호 *characterizing signs*는 퍼스와 윌러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에 있어 지시 기호는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 겨냥한 목표를 가리킨다. 그러한 지시 기호는 대체로 시공의 좌표를 지시하는 것 말고는 그것이 가리키는 목표에 아무런 특징이나 개성을 부여하지 않는 반면에, 개성 기호는 그것이 가리키는 목표에 어떤 특성을 부여한다(Morris, 1938: 24).

지시 표현의 특성은 무엇보다 비지시적인 표현의 특성과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비지시 표현은 모리스(1938)에서는 개성의 낱말 *Charakterisierende Wörter*, 윌러(1934)에서는 이름씨 *Nennwörter* 또는 표시 기능의 낱말 *Wörter mit Nennungsfunktion*로 각각 일컬어진다. 개성의 낱말 또는 이름씨는 그 대상의 종류를 나타낸다. 이를테면 나무 *Baum*란 낱말은 그것이 주는 어떤 성질이 연관된 대상의 종류를 표시한다. 이때 '나무'란 낱말은 그것이 쓰이는 일정한 환경과 상관없이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낱말 '나무'의 의미를 프레게는 그 낱말의 대상이라고 한다(Frege, 1892[(1969: 64)]).

낱말 '나무'의 의미는 그 대상의 성격을 결정하는 자질을 통하여 기술될 수 있다. 낱말 '나무'는 그 대상의 성질을 떠먼저 그의 상징이 된다. 윌러 Bühler는 이러한 까닭에서 나무와 같은 이름씨를 대상의 상징 *Gegenstandssymbole*이라고 불렀다(Bühler, 1934 [1982: 150]).

이러한 대상의 상징은 언어의 상징 영역에서 그 의미를 충족시키고 세련시킨다. 이때 상징 영역이란 한 언어의 모든 언어적 상징이 정연하게 정리된 패러다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각각의 상징은 바로 이 언어의 상징 영역에 자신의 자리를 매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상징의 의미는 다른 상징의 맥락을 통해서 결정된다. 낱말 '나무'의 통사적 의미는 상징 영역에서 형용사 *Adjektiv* 또는 동사 *Verb* 등의 통사의미를 지닌 상징들의 맥락을 통해 명사 *Nomen*로서 매김된다. 낱말 '나무 *Baum*'의 어휘 의미는 덩불 *Strauch*, 초본 *Kraut* 등의 낱말의 값에 의해서 한층 세밀하게 자리매김된다.

6. 개념과 대상

위에서 우리는 언어 기호를 상징과 지시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여보았다.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매개로 하여 언어 밖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적이거나 관념적인 사물 또는 자연 현상을 인식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겪어 그에 이를 수 있는가? 특히 우리는 지시어와는 달리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복합체인 비지시어으로써 어떻게 세계를 이해할 것인가? 이를테면, 명사는 세계의 사물을 언어화하는 기호의 범주로 이해된다. 이 명사의 지위를 대상에 관계하는 표현과 개념에 관계하는 표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코세리우는 개념 *Begriff*에서 대상 *Gegenstand*으로의 이행 과정을 언어의 실현 *Aktualisierung*으로 이해한다(Coseriu, 1975: 262f). 대상에 관계된 명사는 수 *Numerus*와 성 *Genus*의 일치가 문법의 범주로서 표현되는 영어나 독일어의 고유한 특징을 이룬다. 반면에 개념에 관계된 명사 표현은 수의 가름씨 언어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한국어·중국어·일본어·타이어·베트남어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가름씨 언어의 명사는 어떤 낱말의 대상 *entity*, *Objekt*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개

념을 일컫는다(Kölver, 1982: 175).

운터베크 여사는 한국어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의 명사의 범주화를 부정하고 있다. 즉 한국어의 명사는 정관사를 통하여 한정/비한정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단수/복수 표지를 통하여 수의 범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Unterbeck, 1990: 66). 한국어는 정말 명사의 범주가 불가능할까? 또한 개념이 현저한 언어는 그렇다면 대상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독일어의 명사가 대상뿐만 아니라 개념을 표현하는 형태도 될 수 있는가를 보자. 뢰어(Lühr, 1988)는 독일어의 'Stuhl'이란 낱말을 보기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는 'Stuhl'이란 낱말을 사용하여 아주 일정한 장소의 일정한 의자를 의미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의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 즉 'Stuhl'이란 낱말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등받이가 있거나 없거나 네 다리의 버팀목을 지닌 앉을 수 있는 어떤 비슷한 모습의 전종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처럼 추상적인 사고의 유형이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일정한 개념에 속하는 대상들을 헤아리고, 그의 특수한 자질을 드러냄으로써 한정된다.(Lühr, 1988: 252).

명사를 가르고 개별화하여 변별력을 높이는 것은 언어마다 다양한 수단으로 실현된다. 다음에서는 언어의 구체화를 돕는 수의 가름씨를 비교의 척도 *tertium comparationis*로 하여 개념이 현저한 언어는 어떻게 구체성과 개별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7. 종합적인 언어와 분석적인 언어

독일어에 있어 정관사나 지시어와 같은 한정사는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한정사의 형태 변화 가능성은 한정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의 문법 범주에 지배된다. 여기서 문법 범주란 명사의 성 *Genus*, 수 *Numerus* 및 격 *Kasus*을 일컫는다. 따라서 형태 및 통사의 차원에서 명사와 부가적인 한정사 사이의 문법 범주와 관련된 호응 관계를 말할 수 있다. 즉, 한정사가 명사를 수반하여 문법의 일치된 호응 관계를 이루어 쓰이는 한, 한정사는 그 끝에서 형태 및 통사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명사들은 그 고유한 문법 범주를 토대로 하여 형태 변화를 겪는다. 명사의 형태 및 통사 구조의 영역에서 격과 수의 끝이 다음의 보기에서처럼 이루어진다.

die Frau/die Frauen(여성 1격, 단수/복수)

dem Mann/den Männern(남성 3격, 단수/복수) (Duden, 1984: 196)

위의 보기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법 범주들이 하나의 명사에서 표현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명사의 특징은 한정사와 결합하여 그 명사가 어떤 문법의 범주에 해당하는가를 묘사하는 점이다. 이처럼 하나의 낱말에서 문법의 형식과 의미의 실재가 하나로 일치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형태 변화를 겪는 인도유럽어에서는 다양한 실재들의 종합적인 언어 표현이 언급될 수 있다.

한국어의 명사의 성질은 다양한 문법의 범주가 일치되어 종합적으로 표현된 언어의 명사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한국어의 명사들은 격·수 및 성의 표지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이다. 그렇다고 한국어의 명사가 통사의 기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 까닭은 한국어의 명사도 형용사·지시어 및 수사와의 통

사적인 결합을 통한 꾸밈을 받아 명사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명사는 한정사의 앞 또는 뒤로부터의 꾸밈을 받아 상징적인 개념의 명사의 의미 영역을 보다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지시어는 명사와 결합할 때, 형태 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8. 수와 가름씨

수 *Numerus*는 인도유럽어에 있어 셈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수의 범주는 많은 언어에서 두 개의 범주적인 섹형식의 대립항, 즉 단수 *Einheit*와 복수 *Mehrheit*에 기초한다. 단수·복수의 구분은 물론 사람이나 동물 및 사물들을 하나, 또는 하나 이상으로 셀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한다. 따라서 단수/복수의 으뜸 기능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 수 있는 사물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는 명사의 범주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의 형태-통사적인 범주에서 변별적인 것은 오직 복수 표지뿐이다. 그러나 수의 문법 범주를 갖고 있는 언어라고 해서 명사가 모두 단수/복수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독일어에서 물질명사 *Gold*(금), *Eisen*(철), *Wasser*(물), 집합명사 *Vieh*(가축), *Gemüse*(채소), 및 추상명사 *Lust*(욕망), *Musik*(음악) 등은 헤아릴 수 없는 특성 *Transnumeralität*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문법 연구는 이러한 수 *Numerus*의 탈범주 현상을 정의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비록 적지만 복수명사 'Eltern, Leute, Geschwister, Ferien'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인도유럽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수의 범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배적이다. 즉 한국어의 명사는 거의 모두 수의 탈범주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수의 문법 범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어의 명사는 어떤 기호화의 과정을 거쳐 구체성을 획득하는가?

한국어에서 주요한 한정 기능을 갖는 으뜸 지시어 '이' '그' 및

‘저’는 격·수 및 성의 문법 범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한정사를 통하여 표시되는 한국어의 명사구를 이야기할 때, 수와 성의 문법적인 일치는 더 이상 주제가 아니다. 이러한 지시어와 지시어를 통하여 보다 한정된 명사구의 복수 표현을 위해서는 형태소 ‘들’이 그 꾸밈을 받는 낱말의 뒤에 위치한다. 즉 지시어가 역동적인 이야기 상황이나 텍스트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때의 복수 표지를 위해서는 형태소들이 그뒤에 위치한다.

2) 이 }
 그 }
 저 } 들

위의 보기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지시어가 복수 표지를 위하여 그 형태에 따른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 복수형태소는 썸의 자질(\pm zahlbar)을 갖고 있으며, 지시어가 가리키는 셀 수 있는 낱개의 사물들의 집합을 대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시어의 복수 표지를 위해서는 형태소 ‘들’이 필수적이다. 이때 어떤 지시어가 어떤 명사 앞에 부가어적으로 선행하여 명사와 호응하는 관계를 이룰 경우는 복수 표지 ‘들’이 명사 뒤에 위치한다.

3) 그 학생 ‘들’

이 경우 복수형태소 ‘들’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사나 부가형용사가 지시어와 명사 사이에 위치하면, 형태소 ‘들’은 수의적이다.

- 4) ① 그 수많은 학생(들)
 ② 그 수천 명의 학생(들)

4)에서 우리는 형식과 실재가 분리된 기호화를 말할 수 있다. 학생은 실재명사 *Substanz-Substantiv*이고, ‘들’은 형식 요소로서 전형화된 대상을 가리키며 집합의 개념을 띤다. 이러한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운터벡 여사는 많은 한국어 문헌 작업을 통해 한국어를 분석적인 언어로 가름했다. 그의 견해로는 ‘명’은 형식명사 *Form-Substanz*로서 수의 가름씨이며 사람의 구체성만을 한정적으로 가리킨다(Unterbeck, 1992: 55ff). 이때 주목할 것은 수의 가름씨가 어떤 대상의 집합 개념의 개별성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명’은 사람이란 종의 개별성만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마리’는 동물을, ‘그루’는 나무와 꽃만을, ‘개’는 일반적인 사물을 가리킨다. 이러한 보기가 보여주듯이, 한국어는 가름씨 언어 *classifier-language*로 일컬어질 수 있다. 한국어의 가름씨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 위치할 수 있는데, 앞에 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격을 통하여 명사를 잇는 구조를 갖는다(보기 4)의 ② 참조).

한국어의 복수는 수사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형태소 ‘들’은 운터벡의 관찰과는 달리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5) ① 한 사람

② 열 사람들*

③ 여러 사람(들)

5)의 ②에서의 복수 표현은 앞의 수사가 이미 확실하게 복수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소 ‘들’은 복수 표현을 위해서는 동어 반복이 되어 적합하지 않다. 이와는 달리 5)의 ③에서 복수형태소 ‘들’은 명사가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기에 수의적이다. 그럼에도 복수형태소 ‘들’이 뒤에 오면 강조의 효과가 있다.

한국어에서 복수 표현을 위한 형태소 ‘들’의 사용 방법은 두 가지

가 있다.

- 6) ① 학생들(=학생₁ + 학생₂ + 학생₃ + + 학생_n)
 ② 철수들(=영희 + 동진 + 철수 + 순호)

6)의 ①에서 형태소 '들'의 의미는 한 종류의 수많은 사물들의 집합적인 표현이다. 6)의 ②에서는 철수와 이를테면 그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동무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놓은 집단의 개념을 표현한다. 그로써 다른 연령층에 소속한 사람은 이 집합의 원소가 되지 못하면서 변별된다. 따라서 형태소 '들'은 여기서 집단의 표시로 이해된다.

- 7) ① 여러 많은 사람(들)
 ② 여러 많은 돈들*
 ③ 여러 많은 사랑들*
 ④ 여러 많은 금들*

7)의 ①에서 형태소 '들'은 명사 '사람'이 가리키는 실재의 집합, 즉 '사람₁ + 사람₂ + + 사람_n'을 가리킨다. 그러나 물질명사 7) ④나 추상명사 7)의 ③ 등은 복수형태소 '들'의 꾸밈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복수형태소 '들'은 셀 수 있는 사물들만을 한정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반명사가 뒤에 오는 복수형태소의 한정을 통해서 개별성의 정도를 높여준다는 점이다. 한 가지 덧붙일 재미있는 현상은 형태소 '들'이 한 문장에서 다양한 곳으로 위치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복수형태소의 위치의 이동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의 한정을 받는 주격이 형태-통사적인 차원의 표층 구조에서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명사구 '학생들'은 형태소 '들'에 의해서 직접 한정되기 때문에 명사 '학생'의 실재 대상들의 집합을 대리한다. 이 경우는 직접 복수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간접

복수 표시의 경우는 집합형태소가 낱말의 어간이나 어떤 낱말의 문법적인 어미 뒤에 위치한다. 그렇다고 이 문법 어미가 복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집합형태소가 앞에 언급된 지시어처럼 가리키는 행위의 주체가 통사의 차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 8) ① 많이들 먹어라!
 ② 빨리들 오너라!
 ③ 조용히 합시다들

이 집합형태소는 하나의 문장에서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 및 동사 등의 여러 곳에 위치할 수 있다.

9) 제발들 조용히들 하고 잡시다들

9)에서 집합형태소 '들'이 한 문장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말하는 이의 의도를 강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것은 한국어가 이야기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일상어가 쓰이는 상황에서는 일인칭과 이인칭이 통사 차원의 표층 구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야기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장면의 도움으로 매번 상대 호칭을 되풀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써 대화 참여자들은 본래 의도한 표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9. 집단형태소

형태소 '네'는 한 무리의 복수 집단을 표현한다. 이 형태소는 일반적으로 고유명사·인칭대명사,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명사의 뒤에 위치한다. 운터벡 여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것은 대부분 고유명사에 준하는 인칭 표시어 및 성씨를 한정한다(Unterbeck, 1992: 208).

- 10) ① 김씨 '네'
- ② 순이 '네'
- ③ 이기사 '네'
- ④ 박판사 '네'

10)에서 형태소 '네'는 모두 어떤 한 가족의 구성원들의 집단을 가리킨다. 이때 이 형태소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한 부류의 집단에의 소속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형태소가 인칭대명사를 한정하는 경우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강한 유대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11) 우리 '네'가 너 '네'보다 더 유리하다.

집단형태소 '네'는 11)에서 말하는 이가 소속한 그룹의 유대를 듣는 이가 소속한 그룹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현한다.

형태소 '네'는 성 *sex*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킬 수 있다.

- 12) ① 남정 '네'
- ② 여편 '네'

12)에서 '네'는 각각 남성의 집단과 여성의 집단을 가리킨다. 이 명사적 형태소 '네'는 다시 집합형태소 '들'과 연결되어 한정될 수

있다.

13) ① 남정네 '들'은 모두 모이시오.

② 우리 같은 여편네 '들'은……

위의 보기에서 형태소 '들'이 뒤에서 다시 한정함으로써 형태소 '네'의 복수 자질이 매우 약해지지만 집단 표시의 기능은 대신 현저해진다.

10. 의도성과 발화 수반력

이제 정리할 차례이다. 처음의 보기로 돌아가서 언어 사용의 차원에서 이 표현이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살피고 마무리하겠다. 시각적으로 아주 정교한 기호의 연대로 이루어진 '2 fast 4 u'가 하나의 언술이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의 일관된 음운 체계로 실현되어야 한다. 즉 이 표현이 이해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기호의 조합이 하나의 기호 체계에서 통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낱말의 기호가 그 나름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쓰임에서는 다른 전이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기호를 소리와 개념의 일치로 정의하는 시각은 이 표현의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기호를 그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것 *etwas steht für etwas*으로 정의하는 전통(Peirce, Morris)에 따르면, 보기 1)은 탁월한 기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숫자나 하나의 모습 역시 통합의 축에서 완전한 기호로 기능하면서 나무랄 데 없는 표현 체계에 기여한다. 더불어 이러한 표현은 보는 사람에게 신선한 표현 욕구와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표현의 지평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영역을 암

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일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인가? 이 표현이 쓰일 상황을 도로상의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관계시켜보면 그 효과는 좀더 한정된다. 즉 이 표현이 자동차의 뒤 범퍼에 붙여진 것이라고 할 때, 그 지은이는 그로써 안전 거리의 확보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를 본 근처의 차 주인들이 속도를 늦출 때 의미있는 이야기 행위가 산출된다. 그러나 이 표현을 읽고 당신이 만일 자동차의 속도 대신 햄버거를 먹는 속도를 줄인다면, 그것은 이 표현의 주인에게 덧없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의 지은이는 당신의 위장 장애를 걱정할 만큼 한가롭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개인적인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표현이 어쨌든 두 가지 행위를 야기시킨 경우를 고려해보자. 일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개인적인 행위는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지은이도 없고 인식에 도움이 될 지시 상황도 없는 메시지이다. 아름다운 장미의 실체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대신하는 이름뿐이라니, 그 허구를 통해서, 허구 속을 들여다봄으로써 아름다움에 가까이 가는 것이란 또 얼마나 지난한 작업이겠는가. 그 이름을 남긴 사람의 흔적도 없는 곳에는 아무래도 햄버거 먹는 속도를 줄이는 등의 아주 은밀한 행위가 어쨌든 더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 독문과 강사]

참고 문헌

- 이남석, 「밭의 이론과 시적 상상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정계섭, 「자연 언어의 창조성」, 『문화와 기호』, 문학과지성사, 1995.

- Apel, K-O., *Vom Pragmatismus zum Pragmatizismus*, F/Main, 1970.
- Barhillel, Y., *Indexical Expressions*, *Mind* 63, 1954, pp. 359~79.
- Braunmüller, K., *Referenz und Pronominalisierung: Zu den Deiktika und Proformen des Deutschen*. Stuttgart, 1977(Tuebingen, Diss., 1974).
- Bühler, K., *Sprachtheorie*, Stuttgart, 1934[1982].
- Coseriu, E., "Determinierung und Umfeld. Zwei Probleme einer Linguistik des Sprechens," in ders., *Sprachtheorie und 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München, 1975. pp. 253~90.
- Frege, G., *Über Sinn und Bedeutung*, in G. Patzig(ed.), 1892[1969], pp. 40~65.
- Herbermann, C-P., *Modi Referentiae: Studien zum sprachlichen Bezug zur Wirklichkeit*, Heidelberg, 1988.
- Holenstein, E., *Das Erfassen von Gegenständen in perzeptiver und sprachlicher Hinsicht*, in H.Seiler/Ch. Lehman(ed.), 1982, pp. 15~25.
- Kölver, U., *Syntaktische Untersuchung von Numeralklassifikation im Zentralthai*, Köln, 1979.
- Lühr, R., *Neuhochdeutsch*, München, 1988.
- Lyons, J., Semantik, Bd. I, *Aus dem Englischen übertragen und für den deutschen Leser eingerichtet von Brigitte Asbachschnitker*, Jean Boase und Herbert E. Breckle, München: Beck, 1980.
- Morris, Ch.,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signs*, 'Int'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Vol.1, Number 2, The University of Chicago, 1938.
- Peirce, Ch. S., *Collected Papers*, Bd. 8. 2, Boston, 1966.
- Rauh, G., *Linguistische Beschreibung deiktischer Komplexität in narrativer Texten*, Tübingen, 1978.
- Saussure, F. de.,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 Berlin(frz.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961[1931].
- Unterbeck, B., "*Kollektion, Numeralklassifikation und Transnumerus*,"
Diss., Berlin, 1990.
- Unterbeck, B., "*Plurale im Koreanischen*," in ZPSK 45, 1992, pp. 207~16.
- Weinreich, U., "On the Semantic Structure of Language," *Universals of
Language: Report of a Conference Held at Dobbs Ferry*, New York,
April 13~15, 1961(Hg. J. Greenberg. Cambridge, Mass: M. I. T.
Press, 1963, pp. 114~71).